



효당 스님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차도 사상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특별기고

## '다도' 말 뜻 제대로 알자

오늘날 차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다도(茶道)'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옛선인자회(cafe.daum.net/teakorea) 강우석 회장이 <다신전>을 통해 '다도'의 정의를 살펴보는 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정리해 실는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옛선인자회 강우석 회장

'다도(茶道)'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차인들이 이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기우는 경향을 띠고 있다.

다도라는 용어가 문헌상에 최초로 쓰인 것은 당나라 현종(685~762) 때 스님인 석교연(704~785)의 다시 '음다가초최석사군'에 나오는 '누가 다도의 참됨을 온전히 알겠는가! 오로지 단구자만이 알고 있음이라(孰知茶道全爾真 唯有丹丘得如此)'라는 구절이다. 하지만 이는 다도의 정의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다.

이후 다도의 정의는 <다신전(茶神傳)>의 원전인 명나라 장원의 <다록(茶錄)>

명나라 장원의 <다록>에서 거론

<다신전> 23장에서 '다도' 정의

차 따는 것부터 마시는 차생활 일체

적 방법'이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신전> 제8장에서 '포법(沱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포다법(沱茶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다(沱茶)'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사전에는 없으나, 중국의 사전에는 '끓는 물속에 차를 우려내는 것(用沸開的水沖茶)'이라고 나온다. 바로 오늘날 일차를 다관에서 우려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신전> 다공이요, 초의 다공인 포다법을 말한다.

<다신전>의 제1장에서부터 제22장까지를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다도의 정의이다. 각 장을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면

서 다도의 정의를 고찰해보자.

제1장 차를 채취하고(採茶), 제2장 차를 만들며(造茶),

제3장 잘 만들어진 것을 골라낸다(辨茶), 1-3장을 오늘날은 제다(製茶)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잘 만들어진 것을 골라내어 저장하기는 방법은 조(燥)로 표현하고 있다(藏茶). 제5장 불다루기(火候)에서부터 제22장 분다합(分茶)까지의 차를 우려내는 전체적인 방법, 즉 포다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제8장 포법(沱法)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제8장의 내용은 다신전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되며, 또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함축하여 결론하기를 제23장에서 '다도'로 정의한 것이다. 23장에서는 '차를 손에 대접하거나 마실 때의 방식 및 예의범절'이라고 되어 있다. 중국의 사전(대만교육국 어사전, 1998)에는 '차를 품평하는 예술이요 방법이다. 그중 포다적 방법에 대한 것이며, 예의 등 일정한 정도의 질서와 법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포다

# 禪茶 정신 기린다

효당 최범술 스님 탄신 100주년



우리나라 현대 차문화의 중흥시인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

또한 8월 1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효당차도본가에서 스님의 친지와 차인들과 100주기 제사를, 11월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 탄신 백주년 기념 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효당 스님 문집 발간과 '효당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차문화 학술제, 효당가 차법 시연, 스님이 생전에 소장했던 책과 차도구 등을 전시하는 유품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채원화 원장(원쪽 사진)은 1968년부터 10여 년간 효당 스님을 시봉하며 제차법과 차도를 전수받은 제자이자 부인. 채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반야로차의 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를 올바르게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차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채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7월 10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효당 스님의 묘를 찾아 다례제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다례제 모습.

## 다례제 · 유품 전시회 등 문화행사 다채 스님의 차 · 불교사상 담은 책 발간 예정

우리나라 현대 차문화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차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스님의 탄신일인 7월 13일(음력 5월 26일) 차도문화원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차인들과 함께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스님의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다례제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해 오던 행사지만 올해는 100주기를 맞아 다례제를 병행한 후 인근 예술인 마을에 들려 도예지를 탐방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종합 차문화 개론서인 <한국의 차도>와 불교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의 책을 재발간해 스님의 차도 사상과 불교 사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스님의 생애를 보여줄 수 있는 책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차 전문일간지 <다도>에 연재 '효당의 삶과 차도'를 연재하고 있다. 채 원장은 "스님의 생애를 정리하고 이를 글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바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02)763-8486 [yeusureum@buddhapia.com](mailto:yeusureum@buddhapia.com)

### 통도사 현대제 참가단 모집

통도사 선다회(회장 류용숙)는 10월 21일 오후 1시 경내 부도전에서 열릴 부도현대제 및 두리차회에 참가할 차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9월 20일 까지 신청서를 홈페이지(www.tongdosa.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055) 384-8380

### 삼청각 다례원 상설개원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7월부터 삼청각 천주당에 상설 문화체험공간 다례원을 개원한다.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 실시해 오던 체험행사를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운영한다. 월-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전문체험 강좌'도 열린다. (02)730-7191

## 현대 우리차 발전 토대 마련

### 효당 스님은

190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효당 스님은 15년 곤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다술사로 출가해 이듬해 환경 선사에서 계를 받았다. 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영남 지역에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한 스님은 22년

에 당선됐다. 또한 47년 국민대학, 51년 해인중·고등학교, 52년 해인대학을 설립하는 등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60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다술사에 주석하며 원효 스님의 사상과 교학 복원 연구에 전념했다.

스님은 사천 지역에서 자생하고 야생차 씨앗으로 다술사 후원에 다원을 조성해 손수 '반야로(般若露)'라는 정제증차

(精製蒸茶)를 만들었다. 73년 한국 차도의 일문서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차도>

### 명성여자학교 · 국민대학 등 설립

###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 주석 소실 막아

### 국내 최초 차모임 '한국차도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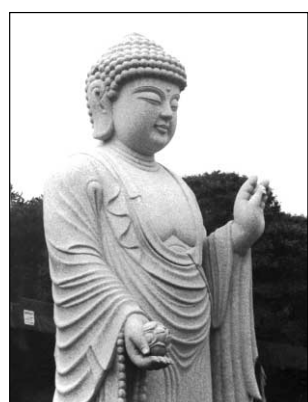
개 항일비밀결사단 만장(仁黨)을 조직했고 33년에는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33년 명성여자학교, 34년 광명학원, 36년 다술사 불교전수강원을 설립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해인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인민군을 설득해 절이 소실되는 위기를 막기도 했다. 47년 미·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 대표로 선출되고, 48년 제헌국회의원

를 집필했고 77년 1월 15일 국내 최초로 차인들의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켜 우리 차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어떤 규범이나 격식, 계층에 얽매임 없이 누구나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차도 무문(茶道無門)'과 다기를 다루는 행위와 그 마음자세를 일컫는 '차도용심(茶道用心)'을 바탕으로 한 선차(禪茶)수행을 확립한 효당 스님은 79년 7월 10일 76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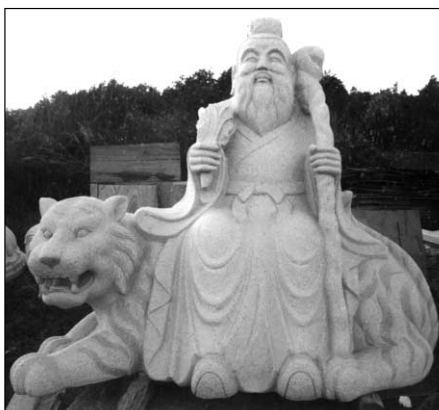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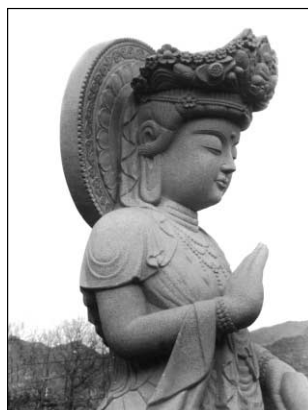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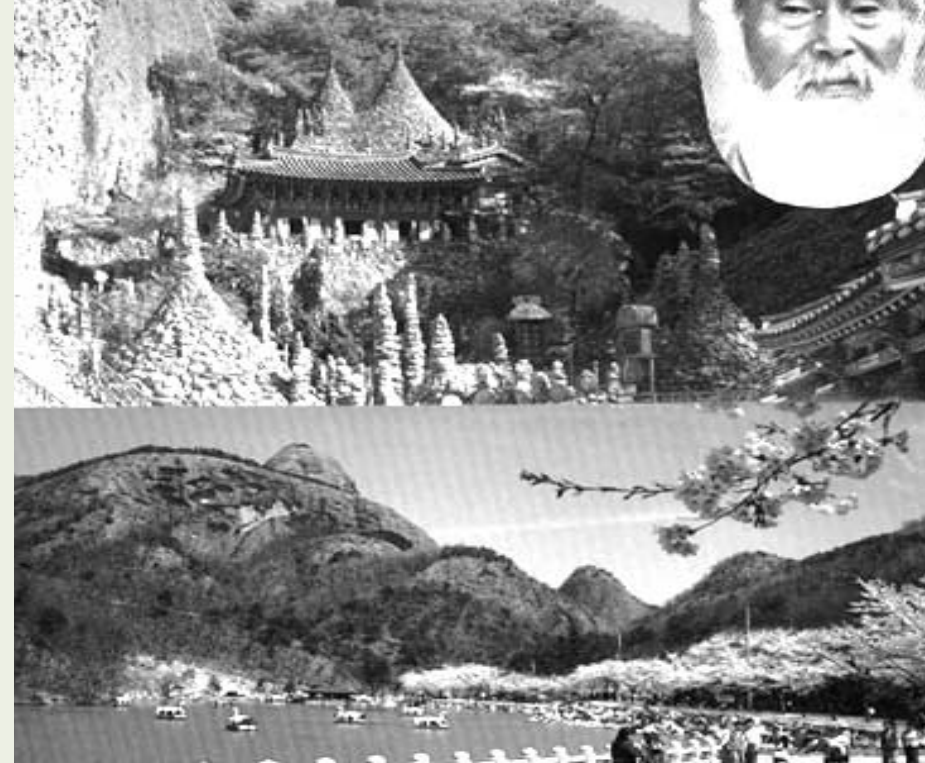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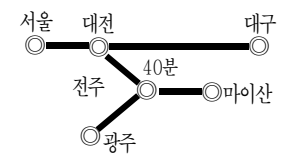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